

글로벌 3자물류 시장 성장과 디지털 기반 물류서비스 경쟁 확대

해당국가	글로벌	기관(기업)	Mordor Intelligence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- 글로벌 3자물류 시장은 물류 아웃소싱 확대와 디지털 전환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AI 기반 물류 운영과 디지털 전환 경쟁이 확대
 - 화주의 비용 절감과 공급망 효율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3자물류 서비스가 성장하고, 자산경량 운영과 디지털 기반 물류서비스가 시장 성장을 견인
 - 시장 규모는 2026년 1조 2,200억 달러(약 1,708조 원)에서 2031년 1조 5,700억 달러(약 2,198조 원)로 확대될 전망(CAGR 5.27%)
 -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자산경량 모델이 2025년 매출의 55.13%를 차지하며, 자산 보유와 위탁을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은 연평균 6.54%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
 - 전자상거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, AI 기반 물류 운영 고도화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물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디지털 물류서비스 도입도 확대
 - 전자상거래 확산(+1.3%p), 국경 간 교역 회복(+0.9%p), 물류 아웃소싱 확대(+0.8%p)가 성장을 견인하고, AI 기반 물류 운영과 공급망 재편, 친환경 물류 수요가 확대
 - 미국의 2025년 멕시코 수입액은 5,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생산기지 이전과 함께 접경지역 물류시설 및 통관·환적 서비스 수요가 확대
- 아시아·태평양이 글로벌 3자물류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화 투자와 M&A 경쟁이 확대되고, 인력 부족과 운임 변동성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
 - 아시아·태평양은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중심의 물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최대 시장이자 최고 성장 지역으로 자리매김
 - 아시아·태평양은 2025년 글로벌 시장의 41.02%를 차지하며 연평균 6.36%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서비스별로는 국내 운송관리가 45.64%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, 수요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생명과학·헬스케어(CAGR 7.62%)로 확대
 - 글로벌 물류기업은 M&A와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운임·인건비 상승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2026년 퀴네앤드나겔은 18억 달러 규모의 아펙스로지스틱스 인수를 완료했으며, DHL은 500개 창고에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추진
 - 미국은 2025년 운송·창고 인력 약 40만 명 부족과 연 8~12% 수준의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, 연료·운임 변동성과 물류 플랫폼 보안 위험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

※ 출처 : Mordor Intelligence(2026.02), 3PL Market Size & Share Analysis - Growth Trends and Forecast (2026-2031)